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강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연극이나 콘서트 같은 공연을 좋아하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보고) 네, 저도 여러분들처럼 아이돌 가수의 공연을 즐겨 보는 편입니다. 공연을 다채롭게 만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관객과 공연자의 소통 공간인 무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대는 공연자가 공연을 하는 곳으로 공연장의 일정 부분을 비워 관객에게 잘 보이도록 설치된 공간을 말하는데, 형태에 따라 원형 무대, 프로시니엄 무대, 돌출 무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 주며) 음악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으시죠?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매년 여름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오페라 축제의 무대인 '아레나'인데요. 이것이 바로 원형 무대입니다. 원형 무대는 중앙에 원형 또는 사각형의 무대가 있고 그 둘레를 객석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사방에서 관객과 공연자가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공연장이라 해도 관객과 공연자의 거리가 매우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관객과 공연자가 직접적으로 소통하거나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무대 전체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자가 등장할 때나 퇴장할 때 관객에게 노출될 뿐 아니라 조명을 숨기거나 다양한 무대 장치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서 연출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진을 보여 주며) 이런 형태의 무대는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장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무대를 프로시니엄 무대 혹은 액자 무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시니엄'은 무슨 뜻일까요? (청중의 반응을 보고) 네, 아무래도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프로시니엄은 '객석과 무대를 갈라놓는 뚫린 벽'을 의미합니다. 이 무대는 액자의 틀에 해당하는 프로시니엄 아치가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고 있으며, 무대 양쪽에서 창고 역할을 하는 윙, 무대의 앞부분인 에이프런, 그리고 음악 연주자들을 위해 무대 앞쪽에 바닥을 낮추어 설치한 공간인 오케스트라 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객석에서는 프로시니엄 아치를 통해서 무대의 정면으로만 공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객이 공연에 집중할 수 있으며, 연출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된 다양한 무대 장치를 활용하여 장면을 화려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대의 세계와 관객의 세계가 분리되기 때문에 원형 무대와 달리 관객과 공연자의 소통이 제한적입니다.

프로시니엄 무대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가 돌출 무대입니다. (사진을 보여 주며) 보시다시피 무대의 에이프런 부분이 반도(半島) 모양으로 객석을 향하여 돌출되어 있고, 객석이 삼면 또는 반원형으로 무대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패션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무대이지요. 돌출 무대의 이러한 형태는 프로시니엄 무대에 비해 관객과 공연자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강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관객은 공연 후 그 느낌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대는 프로시니엄 무대에 비해 관객에게 개방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무대 장치를 활용해 장면을 전환하는 등 화려한 연출을 시도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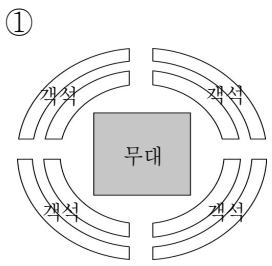
1. 강의자의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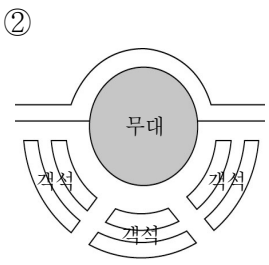
① 강의 내용의 출처를 밝혀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② 강의 중 질문을 하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③ 중심 화제의 개념을 정의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중심 화제를 하위 개념으로 나누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⑤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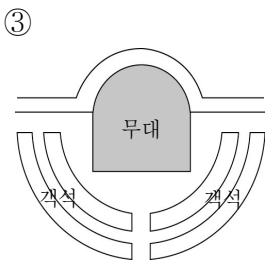
2. 강의 내용을 고려할 때 <보기>의 '한국 탈판'의 무대 형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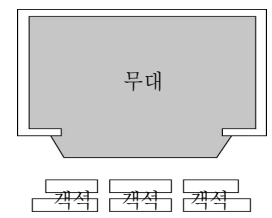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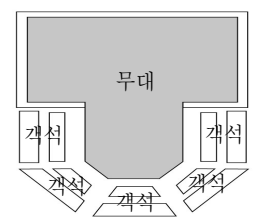
'한국 탈판'은 서구 근대극 무대와 달리 '객석과 무대를 갈라놓는 뚫린 벽'이 없고, 노는 자(공연자)와 보는 자(관객)가 한 호흡을 이루는 한국적 무대 형태이다. 노는 자와 보는 자가 함께 소통하기도 하고, 보는 자가 공연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는 민중놀이의 놀이판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학생이 강의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난번 우리 학생회가 주최한 축제 무대가 프로시니엄 무대였구나. 공연 기획사에서 다양한 무대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고, 우리도 학생들이 집중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무대 형태로 결정했지. 그런데 학생들은 공연자와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없어서 아쉬워했어. 내년부터는 다양한 무대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다소 어렵더라도, 공연자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돌출 무대를 설치하는 게 좋겠어.

①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중심 화제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다.
② 강의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③ 강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④ 강의 내용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것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⑤ 강의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4~7] (가)는 라디오 대담이고, (나)는 (가)를 청취한 학생이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 폐사한 거북이의 코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발견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이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 연구원과 함께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 : 네, 반갑습니다.

진행자 : 얼마 전에도 고래상어 뱃속에서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연구원 : 현재 전 세계 바다에 1억 6천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매년 약 800만 톤이 새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 800만 톤이 워낙 큰 수치다보니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연구원 : 1분마다 쓰레기 트럭 한 대 분량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다수는 육지나 강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으로 바람이나 물살에 쓸려 바다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해마다 10만 9400톤가량의 쓰레기가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데 이 가운데 70% 이상이 플라스틱입니다.

진행자 : 육지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 가운데 바다로 쓸려 들어간 플라스틱의 양이 꽤 많았네요. [A]

연구원 : 집중호우와 태풍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 외에도 분리수거 후 저개발 국가로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중 재활용 처리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바다에 폐기되는 양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도로변 미세 플라스틱,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이 일상적으로 바다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상황이 심각하군요. 플라스틱 쓰레기의 규모를 보니 해양 오염도 심각할 것 같은데요?

연구원 : 그렇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인근 해역의 굴, 담치, 게 등의 어패류를 채집해 내장과 배설물을 분석한 결과 139개체 중 97%에서 5㎜ 미만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B]

진행자 : 그러니까 어패류 체내에 플라스틱이 쌓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연구원 : 네, 현재 바다에는 여러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이 쌓여 있어 플랑크톤을 비롯한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는 물론 플라스틱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먹이 사슬 과정에서 농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이 우리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군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국제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 : 네,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 '런던 협약 및 의정서'가 있습니다. 매년 '런던 협약 및 런던 의정서 합동과학 그룹 회의'를 통해 해양 투기 폐기물 평가 지침을 검토하고 연구 활동을 공유하는 한편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기술 협력 및 지원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관심과 협력이 각국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도입으로 이어지고 있고 플라스틱의 유해성 연구, 해양 쓰레기 제거 기술 연구 또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행자 : 불행 중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들이 해양 오염 개선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구원 : 해양 오염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플라스틱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하나라도 덜 쓰기를 당부 드리고, 사용 후 플라스틱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부착물을 제거하신 후 세척해서 배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행자 : 이제 플라스틱 빨대 하나라도 덜 쓰려는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

얼마 전 라디오 방송에서, 전 세계 바다에 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이 무려 1억 6천만 톤 이상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쓰고 버려왔던 것일까? 일주일간 나의 생활을 돌아보았더니, 패스트푸드점 음식,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하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뚜껑, 일회용 숟가락, 빨대를 버리고 있었으며 매일 마시고 버리는 생수병만 해도 적지 않았다.

매년 세계에서 바다로 배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은 대략 800만 톤이며, 5㎜ 미만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 수는 플랑크톤 수의 180배이다. 이 가운데는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햇빛과 파도에 부서져 생긴 것도 있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바다로 흘려보낸 미세 플라스틱도 있다. 치약, 세정제의 원료로 쓰인 미세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세탁할 때마다 떨어져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또한 방류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바다 속의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면서 먹이 사슬 과정에서 농축되어 수산물을 섭취하는 우리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

해양 오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다회용 식기를 제공하는 매장을 이용하고 개인 컵을 휴대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 또, 다른 소재가 부착되어 있거나 잔여물이 남은 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률이 낮으므로 요구르트, 컵 커피 같은 플라스틱 포장 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알루미늄 뚜껑 부분을 제거한 뒤 세척해서 버릴 필요가 있다.

4. <보기>는 진행자가 (가)를 준비하면서 떠올린 생각이다.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 기>

㉠ 화제와 관련된 최근의 사례를 언급한 후, 대담의 중심 화제를 소개함으로써 청취자의 관심을 유도해야겠어. ㉡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의 규모도 확인하여 청취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도록 해야지. 그 다음, ㉢ 해양 오염 개선을 위한 국제 협약의 성과를 소개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전문적인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겠어. 대담을 끝내기 전에, ㉣ 청취자들이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후 ㉤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를 들며 마무리해야겠어.

① ㉠ ② ㉡ ③ ㉢ ④ ㉣ ⑤ ㉤

5.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A] : '연구원'은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여 '진행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② [A] : '진행자'는 '연구원'이 언급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③ [A] : '연구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④ [B] : '연구원'은 외국의 통계 자료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⑤ [B] : '진행자'는 물음의 형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다.

6. 다음은 (가)를 반영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한 학생의 작문 계획이다. (나)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 대담에서 연구원이 언급한 정보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 실태를 독자에게 알려야겠어. ····· ①
○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활용하여 독자가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도록 해야겠어. ····· ②
○ 대담에서 연구원이 언급하지 않은 정보를 추가로 조사하여 생활 하수를 통해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독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해야겠어. ····· ③
○ 대담에서 연구원이 언급한 내용에 대한 예를 들어 독자가 실천해야 할 방법을 명료하게 파악하도록 해야겠어. ····· ④
○ 다른 소재의 재활용률보다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이 낮음을 지적하여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겠어. ····· ⑤

7. 다음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나)에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 독자에게 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마지막에 상황의 심각성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앞서 제안했던 실천이 갖는 의의를 나타내면 좋습니다.

① 플라스틱은 생산되는 데 5초, 쓰이는 데 5분, 분해되는 데 500년이 걸리는 소재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한 신소재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유용한 신소재로 재탄생할 날도 멀지 않았다.
② 우리나라 남해 연안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바닷물 $1m^3$에 평균 21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모이면 해양 환경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줄어들 것이다.
③ 태평양의 동서쪽에는 한반도 면적의 7배 크기인 쓰레기 섬과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텍사스 주 면적의 2배 크기인 쓰레기 섬이 떠다니는데, 쓰레기 섬의 90%를 차지하는 것은 플라스틱이다. 현재의 추세라면, 2050년 무렵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④ 유엔환경계획은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에 쌓이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치약, 화장품 생산에 쓰였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의 위험성이 알려지자 호두 껍데기나 코코넛 껍데기 같은 유기 물질로 원료를 바꾸는 기업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⑤ 미국, 멕시코, 중국 등 9개국 11개 브랜드 생수 259병을 조사한 결과 93%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고, 21개국에서 판매되는 소금을 분석한 결과 90%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 사회 문제 중 하나를 중심 화제로 선정한 후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을 신문에 투고해 보자.
- 예상 독자 : 신문 구독자들
- 글의 목적 : 항생제 오남용 예방을 위한 설득적 글쓰기
- 글의 주제 : 항생제 오남용의 실태를 알고 항생제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자.

(나) 글의 초고

항생제는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을 죽이거나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로, 적절하게 사용하면 질병을 빠르게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생명 연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약이다. 1928년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이 개발된 이후 콜레라, 결핵 등 치료가 힘들었던 질환을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간의 평균 수명이 약 40세에서 71.4세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항생제를 오남용하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점점 강해짐에 따라 인류가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이전의 암흑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항균 내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이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으로 매년 70만 명 이상이 항생제 내성균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3초마다 1명꼴로, 매년 1,000만 명이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내성이란 항생제에 우리 몸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약의 효과가 없어진 상태로, 우리 몸속에 내성을 지닌 슈퍼박테리아가 생기면 질병 치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세균이 항생제에 맞서기 위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내성이 강력해짐으로써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상처나 가벼운 감기에도 목숨을 잃는 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항생제 오남용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항생제를 매일 복용하는 사람은 1,000명 중 31.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조사 대상 12개 나라 평균 23.7명보다 현저히 높다. 우리는 평소 가벼운 감기에도 항생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항생제는 세균을 죽일 수 있을 뿐 세포벽에 옮는 바이러스는 죽일 수 없다. 감기 같은 질환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항생제 처방 없이 체내의 면역 작용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은 체내에서 면역 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발생하는 열이나 콧물, 가래 등을 참지 못해 병원을 찾는다. 그러면 의사들이 항생제가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내성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항생제를 오남용하면 정작 항생제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내성으로 인해 치료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항생제를 무조건 기피하는 것 또한 잘못이다.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항생제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다고 판단해서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면, 세균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항생제에 대해 내성이 생기게 된다.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 자체가 내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생제의 오남용이 내성을 만드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항생제 사용은 자제하되 항생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된 방법과 기간을 준수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항생제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8. 다음은 (나)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이다. (가)를 참고하여 ⓐ~ⓔ를 점검한 내용 중 (나)에 반영되지 <u>않은</u> 것은?

ⓐ 중심화제에 대해 어떻게 독자의 관심을 유도할까?
ⓑ 항생제란 무엇일까?
ⓒ 항생제를 오남용하는 실태는 어느 정도일까?
ⓓ 항생제 오남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실천 방안은 무엇일까?

① ⓐ :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문제 상황을 알 수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해야겠어.
② ⓑ : 중심 화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생제의 개념과 효과를 설명해야겠어.
③ ⓒ : 문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오남용 실태를 제시해야겠어.
④ ⓓ :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초래될 부정적 상황을 언급해야겠어.
⑤ ⓔ : 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의 실천 방안을 제안해야겠어.

9. (나)의 글을 신문에 실을 때,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양날의 검, 항생제
– 적정 사용으로 내성 예방
② 세균 생장 억제하는 항생제
– 바이러스성 질환엔 무용
③ 예방적 차원의 항생제 처방
– 내성률 감소로 평균 수명 연장
④ 항생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유전자 변이 항생제, 면역 체계 파괴
⑤ 세균성 감염병 치료제, 항생제
– 슈퍼박테리아 출현으로 더 큰 질병 유발

10. <보기>는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설문 자료

ㄱ-1.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

설문 대상: 전국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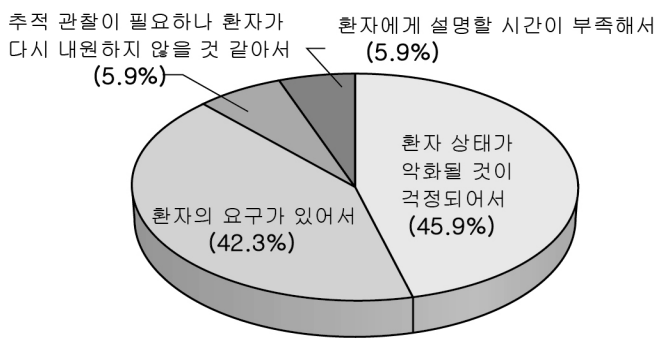
1. 열이 날 때 집에 보관해 둔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한 적이 있다.	18.5%
2. 증상이 좋아지면 처방된 항생제를 임의로 중단해도 된다.	67.5%
3. 항생제 복용이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	56.4%

ㄱ-2. 항생제 처방 실태

설문 대상: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사 864명

1. 열과 기침으로 내원한 환자의 감염 원인이 세균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항생제를 처방한 적이 있다.	50.1%
2.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생제를 처방한 적이 있다.	43.6%

2-1.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이유



(질병관리본부, 2017)

ㄴ. 보고서

항생제 사용 및 내성에 대한 교육이 항생제에 대한 인식 개선에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55개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올바른 항생제 사용,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감기를 치료하는 데 항생제가 효과가 없다는 것과 항생제로 치료하는 중 임의로 항생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비율이 30% 이상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ㄷ. 전문가 인터뷰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은 67.7%로 프랑스 20%, 영국 13.6%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에는 항생제 오남용 방지, 철저한 병원 감염 관리,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 및 백신의 보급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의 오남용은 항생제 내성 발생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항생제 사용량이 많을수록 내성률도 높습니다."

– □□□ 연구원 –

① ㄱ-1과 ㄱ-2를 활용하여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사와 처방받는 환자 모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② ㄱ-2를 활용하여 의사들의 적절한 항생제 처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③ ㄴ을 활용하여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④ ㄷ을 활용하여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항생제를 오남용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⑤ ㄱ-2와 ㄷ을 활용하여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추가한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술어에 따라 완전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 한다.

'한 자리 서술어'는 주어만을 필요로 한다.

예 아기가 운다.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 외에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 중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더 필요로 한다.

예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
아들이 아빠와 닮았다.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예 그녀는 그 아이를 제자로 삼았다.

위 문장에서 부사어인 '아빠와', '제자로'는 필수적 성분으로서, 생략되었을 경우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이러한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 한다.

한편 문장에서 사용되는 의미의 차이에 따라 그 자릿수를 달리하는 서술어도 있다.

예 ㉮ 나는 그녀를 생각한다.
㉯ 나는 그녀를 선녀로 생각한다.

㉮의 '생각하다'는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하여 기억하다'는 뜻으로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이에 비해 ㉯의 '생각하다'는 '의견이나 느낌을 가지다'는 뜻으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11. <보기>는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듣다01 [-따] [들어, 들으니, 듣는[든-]]
「동사」
[1] 【…을】
사람이나 동물이 소리를 감각 기관을 통해 알아차리다.
¶ 나는 숲에서 새소리를 ⓐ듣는다.
[2] 【…에게 …을】
주로 윗사람에게 꾸지람을 맞거나 칭찬을 듣다.
¶ 그 아이는 누나에게 칭찬을 자주 ⓑ듣는다.
[3] 【…을 …으로】
어떤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다.
¶ 그들은 고지식해서 농담을 진담으로 ⓒ듣는다.

듣다02 [-따] [들어, 들으니, 듣는[든-]]
「동사」
【…에】
눈물, 빗물 따위의 액체가 방울져 떨어지다.
¶ 차가운 빗방울이 지붕에 ⓓ듣는다.

① ⓐ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② ⓑ는 주어와 목적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③ ⓒ는 주어 외에 두 개의 문장 성분을 더 필요로 한다.
④ ⓐ와 ⓓ는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서로 같다.
⑤ ⓑ와 ⓓ는 의미에 차이가 있지만 서술어 자릿수는 같다.

12. 밑줄 친 부분이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그 아이는 매우 영리하게 생겼다.
② 승윤이는 통나무로 식탁을 만들었다.
③ 이 지역의 기후는 벼농사에 적합하다.
④ 나는 이 일을 친구와 함께 의논하겠다.
⑤ 작년에 부모님께서 나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

13. <보기>를 참고하여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음운의 변동은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으로 구분된다.

① '밥물[밤물]'이 발음될 때에는 'ㅂ'이 'ㅁ'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② '광한루[광:할루]'가 발음될 때에는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③ '좋아[조:아]'가 발음될 때에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만나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④ '색연필[생년필]'이 발음될 때에는 첨가되는 'ㄴ'으로 인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⑤ '옷 한 벌[오탄벌]'이 발음될 때에는 'ㅅ'이 탈락한 후 첨가되는 'ㄷ'이 'ㅎ'과 만나 'ㅌ'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14. 다음은 수업의 일부이다. 이를 참고할 때,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문장은?

학생: 선생님, '뿐'은 앞말에 붙여 쓰는 경우도 있고 띄어 쓰는 경우도 있던데 어떻게 띄어 써야 하나요?
선생님: 품사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져요. '나에게는 너뿐이야.'에서처럼 '너'라는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의 뜻을 나타낼 때의 '뿐'은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써야 해요. 그런데 '그녀는 조용히 웃을 뿐이었다.'에서의 '뿐'은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 '웃을' 뒤에 붙어서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해요.
학생: '뿐'과 같이 띄어쓰기가 달라지는 예가 더 있나요?
선생님: 대표적인 예로 '대로, 만큼'이 있어요.

① 아는**대로** 모두 말하여라.
② 마음이 약해질**대로** 약해졌다.
③ 모든 것이 자기 생각 **대로** 되었다.
④ 손님들은 먹을 **만큼** 충분히 먹었다.
⑤ 그 사람은 말 **만큼**은 누구보다 앞선다.

15. 다음은 높임 표현에 대한 탐구 학습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높임 표현의 종류와 실현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보기> 문장에 나타난 높임 표현을 설명해 보자.

종류	실현 방식
상대 높임	· 대화의 상대, 즉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춤 · 종결어미 '-습니다', '-다', '-(으)십시오', '-(아/어)라' 등을 사용
주체 높임	· 서술의 주체, 즉 문장의 주어를 높임 · 선어말 어미 '-(으)시-' 결합 · 주격 조사 '께서' 사용 · 특수 어휘 '계시다', '주무시다' 등 사용
객체 높임	· 서술의 객체, 즉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임 · 부사격 조사 '께' 사용 · 특수 어휘 '드리다', '뵙다' 등 사용

<보 기>

㉠ 채윤아, 할아버지께 물 좀 갖다 드려라.
㉡ 선생님, 어제 부모님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_____

① ㉠은 종결어미 '-어라'를 사용하여 대화 상대인 '채윤'을 낮추고 있다.
② ㉠은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③ ㉡은 특수 어휘 '말씀'을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④ ㉡은 종결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대화 상대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⑤ ㉡은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부모님'을 높이고 있다.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식물의 생장에는 물이 필수적이다. 동물과 달리 식물은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 생장에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 내는데, 물은 바로 그 원료가 된다. 물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중력을 받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식물은 지구 중심과는 반대 방향으로 자란다. 따라서 식물이 줄기 끝에 달려 있는 잎에 물을 공급하려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물을 끌어 올려야 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세쿼이아가 있다. 이 나무는 키가 무려 112m에 이르며, 뿌리는 땅속으로 약 15m까지 뻗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물이 뿌리에서 나무의 꼭대기에 있는 잎까지 도달하려면 127m나 끌어 올려져야 한다. 펌프 같은 장치도 보이지 않는데 대체

물이 어떻게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일까? 식물은 어떤 힘을 이용하여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물을 끌어 올릴까? 식물이 물을 뿌리에서 흡수하여 잎까지 보내는 데는 뿌리압, 모세관 현상, 증산 작용으로 생긴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A] 호박이나 수세미의 잎을 모두 ⓐ떼어 내고 뿌리와 줄기만 남기고 자른 후 뿌리 끝을 물에 넣어 보면, 잘린 줄기 끝에서는 물이 힘차게 솟아오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올라온다. 뿌리털을 둘러싼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땅에 비해 여러 가지 유기물과 무기물들이 더 많이 섞여 있어서 뿌리 바깥보다 용액의 농도가 높다. 다시 말해 뿌리털 안은 농도가 높은 반면, 흙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은 농도가 낮다. 이때 농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흙 속에 있는 물 분자는 뿌리털의 세포막을 거쳐 물 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뿌리 내부로 ⓑ들어온다. 이처럼 농도가 낮은 흙 속의 물을 농도가 높은 뿌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힘이 생기는데, 이를 뿌리압이라고 한다. 즉 뿌리압이란 뿌리에서 물이 흡수될 때 밀고 들어오는 압력으로, 물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다.

물이 담긴 그릇에 가는 유리관을 ⓒ꽂아 보면 유리관을 따라 물이 올라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처럼 가는 관과 같은 통로를 따라 액체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한다. 모세관 현상은 물 분자와 모세관 벽이 결합하려는 힘이 물 분자끼리 결합하려는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서 관이 가늘어질수록 물이 올라가는 높이가 높아진다. 식물체 안에는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 잎까지 연결된 물관이 있다. 물관은 말 그대로 물이 지나가는 통로인데, 지름이 75㎛(마이크로미터, 1㎛=0.001mm)로 너무 가늘어 눈으로는 볼 수 없다. 이처럼 식물은 물관의 지름이 매우 작기 때문에 ㉠모세관 현상으로 물을 밀어 올리는 힘이 생긴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더운 여름철에는 큰 나무가 만들어 주는 그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나무가 만들어 주는 그늘이 건물이 만들어 주는 그늘보다 더 시원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무의 잎은 물을 수증기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데, 이때 물이 주위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나무의 그늘 아래가 건물이 만드는 그늘보다 훨씬 시원한 것이다. 식물의 잎에는 기공이라는 작은 구멍이 있다. 기공을 통해 공기가 들락날락하거나 잎의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기도 한다. 이처럼 식물체 내의 수분이 잎의 기공을 통하여 수증기 상태로 증발하는 현상을 ㉡증산 작용이라고 한다. 가로 세로가 10×10cm인 잔디밭에서 1년 동안 증산하는 물의 양을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55톤이나 되었다. 이는 1리터짜리 페트병 5만 5천 개 분량에 해당하는 물의 양이다. 상수리나무는 6~11월 사이에 약 9,000kg의 물을 증산하며, 키가 큰 해바라기는 맑은 여름날 하루 동안 약 1kg의 물을 증산한다.

기공의 크기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보통 폭이 8㎛, 길이가 1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크기가 1cm^2인 잎에는 약 5만 개나 되는 기공이 있으며, 그 대부분은 잎의 뒤쪽에 있다. 이 기공을 통해 그렇게 엄청난 양의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해 버린다. 증산 작용은 물을 식물체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으로,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줄기를 거쳐 잎까지 올라가는 원동력이다. 잎의 세포에서는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아래쪽의 물 분자를 끌어 올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즉, 물 분자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으로써 연결되는데, 이는 물 기둥을 형성하는 것과 같다. 사슬처럼 연결된 물 기둥의 한쪽 끝을 ⓔ이루는 물 분자가 잎의 기공을 통해 빠져 나가면 아래쪽 물 분자가 끌어 올려지는 것이다. 증산 작용에 의한 힘은 잡아당기는 힘으로 식물이 물을 끌어 올리는 요인 중 가장 큰 힘이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식물의 종류에 따라 기공의 크기가 다르다.
② 식물의 뿌리압은 중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③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
④ 뿌리에서 잎까지 물 분자들은 사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⑤ 물관 내에서 물 분자와 모세관 벽이 결합하려는 힘으로 물이 위로 이동한다.

17. [A]와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삼투 현상이란 용액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선택적 투과성 막을 통해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때 물이 이동하는 힘을 삼투압이라 하며, 이 힘은 용액의 농도에 따라 비례한다. 삼투 현상의 예로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면 소금 입자는 이동하지 못하고 배추에 있는 물이 소금물 쪽으로 이동하여 배추가 절여지는 것을 들 수 있다.

① 뿌리털을 둘러싼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 막 역할을 한다.
② 소금물에 소금을 추가하면 배추에서 빠져 나오는 물이 이동하는 힘이 커진다.
③ 선택적 투과성 막을 흙 속의 물 분자는 통과할 수 있지만 소금 입자는 통과할 수 없다.
④ 흙 속의 물과 배추의 물이 이동하면 뿌리털 안의 용액과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진다.
⑤ 뿌리가 흙 속의 물을 흡수하는 것과 배추에서 물이 빠져 나오는 것은 용액의 농도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1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관의 지름에 따라 물이 올라가는 높이가 달라진다.
② ㉡이 일어나면 물이 식물체 내에서 빠져 나와 주변의 온도를 낮춘다.
③ ㉠에 의해서는 물의 상태가 바뀌지 않고, ㉡에 의해서는 물의 상태가 바뀐다.
④ ㉠으로 물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으로 물을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긴다.
⑤ ㉠에 의해 식물이 물을 밀어 올리는 힘보다 ㉡에 의해 식물이 물을 끌어 올리는 힘이 더 작다.

19. ㉮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예로 적절한 것은?

① 피부에 알코올 솜을 문지를 때
② 주머니 난로의 액체가 하얗게 굳어갈 때
③ 음식물을 공기 중에 오래 두어 부패될 때
④ 이누이트 족이 얼음집 안에 물을 뿌릴 때
⑤ 폭죽에 들어있는 화약이 터져 불꽃이 발생할 때

20. 학생이 <보기>와 같은 실험을 하였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가) (나) (다)

크기와 종류가 같은 식물 셋을 (가)는 줄기만, (나)는 줄기와 잎만을 남겨 비닐을 씌운다. (다)는 뿌리, 줄기, 잎을 그대로 둔다. 셋을 물에 담아 햇빛 등이 동일한 조건에서 변화를 관찰하였다.

① (가)보다 (나)의 비닐 안쪽 면에 물방울이 덜 맺힐 것이다.
② (가)의 용기에 담긴 물이 (나), (다)의 용기에 담긴 물보다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③ (나)에서는 한 가지 힘이, (다)에서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여 물이 이동한다.
④ (가), (나), (다) 모두 물 분자들이 연결된 물 기둥이 형성될 것이다.
⑤ (가), (나), (다) 모두 공기가 식물 내부로 출입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2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삭제(削除)하고
② ⓑ: 투입(投入)된다
③ ⓒ: 부착(附着)하면
④ ⓓ: 상이(相異)한데
⑤ ⓔ: 조성(造成)하는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함 상품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제조 과정에서 제조자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에 따른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에 소비자가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이 적용되는 ⓐ 제조물과 ⓑ 제조업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제조물은 공산품, 가공 식품 등의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물품이 포함된다. 또한 중고품, 폐기물, 부품, 원재료도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가공 농수축산물 등은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농수축산물 등 일차 농산품에까지 확대할 경우 농업인 등이 쉽게 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 조항에 의하여 유통업자와 가공업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불공정하게 책임을 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손해 배상의 책임 주체인 제조업자에는 부품 또는 완성품의 제조업자, 제조물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자신을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로 표시한 자가 포함된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공급업자도 해당된다.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데, 결함의 유형에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조 또는 가공상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또는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며,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소비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했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결함 사실과 손해 발생의 사실, 그리고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의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해당 제조물 자체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하면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첫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둘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셋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한 사실 등이다. 그밖에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

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면책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 알면서도 적절한 피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업자의 배상 의무는 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고, 결함이 있는 제조물 자체는 민법에 따라 유통업자나 판매업자에게 구제받아야 한다. 예컨대, 결함이 있는 녹즙기로 인하여 손을 다쳤을 경우, 치료비는 제조업자에게 배상받고 불량품인 녹즙기는 판매업자에게 환불받을 수 있다.

22.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 배경은 무엇인가?
ㄴ. 제조물의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ㄷ.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 제조물과 제조업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ㄹ. 제조물 책임법상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A는 안심 버튼이 있어 사용 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광고를 보고 B사의 전기 주전자를 C마트에서 구입하였다. 그러나 물을 끓이던 도중 B사의 전기 주전자가 넘어져 쏟아진 물에 생후 8개월 된 A의 딸이 양팔에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주전자의 개폐 버튼 부분이 잘못 결합되어 물이 새는 결함이 발견되었다.

(나) D가 E사의 승용차 탈취제를 구입하여 사용 설명서에 따라 에어컨 통풍구에 분사하던 중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제품 사용 설명서에는 탈취제가 LP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문구가 없었다. 조사 결과 탈취제의 LP가스가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① A가 B사에 책임을 물으려면 전기 주전자를 통상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겠군.
② A는 B사로부터 전기 주전자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겠군.
③ B사는 제조상의 결함을 지닌 제품을 생산했군.
④ D는 승용차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E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군.
⑤ E사가 제조한 승용차 탈취제는 표시상의 결함을 지녔군.

24. ㉮와 <보기>의 ㉯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리콜제도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제조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강제 명령에 의해 제품의 결함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의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 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결함 제품에 의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 안전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① ㉮가 사후 피해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는 결함 제품에 의한 피해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② ㉮는 결함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실에 대해, ㉯는 결함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③ ㉮와 달리 ㉯는 제품 결함이 발견된 경우 소비자에게 결함 내용을 알리는 제도이다.
④ ㉯와 달리 ㉮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이행된다.
⑤ ㉮와 ㉯는 모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 발생을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다.

25. ⓐ와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장품, 건전지와 달리 고등어는 ⓐ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중고 자동차는 ⓐ에 포함되며, 이를 수입하는 자는 ⓑ에 해당된다.
③ 복숭아 통조림은 ⓐ에 포함되고, 이를 제조한 자와 복숭아를 생산한 자 모두 ⓑ에 해당된다.
④ 자동차 부품의 결함으로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면 자동차 부품을 만든 자는 ⓑ에 해당되므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⑤ 전자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지만 제품을 공급했을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결함이라면 ⓑ는 손해 배상에 대한 면책 요건을 갖추고 있다.

26. 문맥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이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
② 밖으로 나와서야 날씨가 추운 것을 알았다.
③ 그녀는 차는 없었지만 운전을 할 줄 알았다.
④ 그 사람은 공부만 알지 세상 물정을 통 모른다.
⑤ 그녀는 그의 사랑 고백을 농담으로 알고 지나쳤다.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희망

훗날 문성현이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올라갔을 때, 가장 어린 날의 광경은 막냇동생 승현의 돌날이었으니 그가 여덟 살이 되었을 때였다. 그때 그는 방안에 혼자 누워 있었다. 힘겹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곁에 없었다. 얼마나 울어젖혔는지 목이 잔뜩 쉬어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문 저쪽에 모여들 떠들고 있었다.

뭘 잡나 보자구. 돈을 잡아 재벌이 되려나, 책을 잡아 학자가 되려나.

잡는다, 잡아… 앗따따 활이다 활! 큰 장군이 될라. 좋지 좋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왁자하게 들려 왔다. 성현은 계속하여 울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울 수가 없었다. 여느 때 같으면 그는 누군가가 나타날 때까지 마구 몸부림을 치며 울었을 것이다. 아무도 자신처럼 벋정대며 울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그 순간에 깨달았던 것이다. 자신은 다른 이와 너무나 달랐다. 다른 사람들은 말을 사용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다. 불편할 때나 화가 날 때나 무언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는 마구 고함을 지르며 울어젖혔던 것이다.

그날부터 그는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절대로 울지 않았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그는 말을 잘 하지 못했다. 말을 하려 해도 입이 따라 주지 않았다. 답답했다. 그러나 다시는 고함치며 울지 않았다. 자신의 울음소리는 그 누구에게보다도 스스로에게 너무나 끔찍하고 지겨웠다. 그는 벙어리처럼 행동했다. 배가 고파도, 대소변으로 아랫도리를 적셔도 그는 짜증을 내거나 화내지 않았다. 다른 이가 방에 들어올 때까지 그는 다만 참고 견뎌 내었다. 그때부터 그는 슬펐다. ㉠ 울음을 몸 밖으로 터뜨리지 않으니 몸 안에 눈물이 고였다.

조용해지고 나니 마음이 안정되었다. 마음이 안정되고 나니 그는 자신의 고개가 필요 없이 마구 흔들림을 깨닫게 되었다. 오른쪽으로 조금 튼다고 하는 것이 어느새 고개는 어깨 너머까지 돌아갔다. 다시 똑바로 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왼쪽으로 홱 돌아가 버렸다. 그는 조금씩 요령을 터득해갔다. 무엇보다도 침착해야 했다. 마음의 안정이 필요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팔다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펴지지 않는 손가락, 발가락이야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마음만 푸근히 진정하고 나면 남이 민망할 정도로 사지가 꼬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는 입을 다물었다. 체머리를 흔들면서 헤벌어진 입으로 침을 흘리는 것이 얼마나 흉한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그때부터 그는 참으로 슬펐다. 벌어진 입을 다물고 나니 가슴으로 드는 헛헛한 바람을 내쏟을 방법이 없었다.

훗날 문성현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의 이부자리 밑에 간직하고 있었던 장난감 활은 바로 막냇동생 승현의 돌상에 돌잡이로 올렸던 것이었다. 대나무를 별러 노끈으로 묶은 그것은 그의 어린 시절 희망의 상징이었다. 일부러 누가 그에게 가져다준 것은 아니었다. 방구석에 활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몸을 뒤치어 자신의 요 밑에 집어 넣었던 것이다. 우현의 나이가 여섯 살이었으니 아마도 어른들을 피해 성현이 있는 건넌방에 가지고 와서 놀다가 무심코 놓고 간 것이 분명했다.

앗따따 활이다 활! 큰 장군이 될라. 그 작고 조잡한 활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묻어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하아, 하, 화, 화아아알. 화아알. 활.

조용해지고부터, 체머리를 흔들지 않고부터, 입을 다물고부터 그는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다. 그 속에 산과 들, 밀림이 있었다. 몸집이 큰 코끼리, 기린, 갖가지 색깔의 크고 작은 새들이 있었다. 현미경으로나 보일 만한 조그만 나비, 개구리알도 있었다. 먼 나라에는 이상한 풍습을 가진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 세상은 볼수록 흥미진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이처럼 앉지도 서지도 걸어다닐 수도 없는 그에게는 텔레비전을 통해 보는 다른 이들의 삶이 한편으로는 가슴 떨리는 열망이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부서뜨리고 싶은 안타까움이기도 했다.

그래도 어린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다른 이와 결코 같을 수는 없지만, 너무나 더디고 서투르기는 했지만 그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벋버듬한 채로 자라는 그의 몸피, 그는 그때 고작 십대였던 것이다. 힘겹기 짝이 없었지만 그는 텔레비전으로 기어가 자신이 보고 싶을 때 그것을 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라디오를 켜고 끌 줄 알게 되었다. 선풍기도 작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혼자 앉는 법을 익히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란 없다고 그는 뇌까렸다. 가슴속에 희망을 품은, 한창 자라고 있는 십대의 사내아이에게는 스스로 앉는 연습이란 단지 모든 것의 시작에 불과했다. 자유롭게 앉을 수 있게 된 후에는 서는 연습을 할 계획이었다. 두 다리로 선 후에는 조심조심 발을 떼고, 그리고 걷고, 뛸 예정이었다. 개켜놓은 옷처럼 축 처진 자신의 아랫도리가 풍선처럼 부풀어, ㉡ 머지않아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거리를 활보할 것이며 신이 나면 춤이라도 멋지게 추어댈 참이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들판을 가로질러 활시위를 당길 생각이었다. 까마득히 보이는 들판 끝 과녁에 예리한 화살을 날리면 쏘는 것마다 명중, 명중. 앗따따 활이다 활! 큰 장군이 될라. 그는 조용히 입을 떼었다. 하아, 하, 화, 화아아알. 화아알. 활.

<중략>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드디어 혼자 앉기에 성공했다. 두 번째로 혼자 앉은 것은 그때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저녁 때의 일이었다. 그는 요령을 터득해 갔다. 재빨리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반동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그가 제대로 앉는 데에는 적어도 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익숙하게 앉기 위해 연습에 연습을 계속했다. 그가 앉는 연습을 한 건넛방 벽은 꼴이 말이 아니었다. ㉢ 아쉬운 대로 덧붙인 도배지가 2, 3일이면 흙과 함께 떨어져 나갔다. 벽 속의 외얽이가 허옇게 드러나는 참이었다. 어머니가 환히 웃으셨다.

㉣ "그래 성현아. 그깟 흙벽 뻥 뚫어 버려라."

혼자 앉는 법을 익히고 나니 휠체어에 앉는 것도 훨씬 편했다. 누구보다도 신이 나신 분이 아버지였다. 주말이 되면 아버지는 성현을 휠체어에 태워 골목 밖으로 데려 나갔다. 수많은 사람들, 차들, 상점들. 아버지가 들뜬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성현아, 힘드냐? 안 힘들지? 하나도 안 힘들지?"

물론. ㉤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았다. 힘들다니. 더 힘든 고난이, 더더욱 힘든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해도 그는 절대로 힘들 수가 없었다. 그는 이제 곧 다른 사람들처럼 서고 걷고 달릴 참이었다. 아버지는 끝없이 휠체어를 밀었다. 까짓 보도 블록으로 포장된 모든 길, 이참에 다 걸어낼 참이었다.

– 윤영수, 「착한 사람 문성현」 –

27.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사람들은 문성현에게 훗날 큰 장군이 될 것이라고 덕담을 해 주었다.
② 우현은 형 문성현을 위해 자신의 활을 부모 몰래 형의 방에 갖다 주었다.
③ 승현의 돌날은 문성현이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날이었다.
④ 문성현은 자신의 최종 목표를 혼자 스스로 앉는 것에 두고 연습을 했다.
⑤ 문성현은 거울을 보며 남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28. 활과 텔레비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활'은 문성현이 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해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한다.
② '텔레비전'은 문성현과 외부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③ '활'은 '텔레비전'과 달리 문성현과 그의 동생 우현이 정서적 유대감을 갖게 한다.
④ '텔레비전'은 '활'과 달리 문성현에게 복합적인 감정을 유발한다.
⑤ '활'과 '텔레비전'은 모두 문성현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한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착한 사람 문성현」은 뇌성 마비를 앓는 주인공의 삶을 탄생, 희망, 혼란, 평온, 분노, 살아 있음 등 6개의 소제목으로 나눠 그린 작품이다.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과 이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집안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존엄성과 희망의 의미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주인공의 입장에 초점을 맞춘 서술과 객관적인 사실 전달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삶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고 있다.

① ㉠은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을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주인공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군.
② ㉡은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할 수 있으리라는 주인공의 바람으로, 소제목 '희망'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군.
③ ㉢은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주인공이 남긴 흔적을 보여 주고 있군.
④ ㉣은 장애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주인공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격려하려는 어머니의 모성애를 담고 있군.
⑤ ㉤은 주인공에게 닥친 고난에 대한 인식을 주인공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군.

[30~3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늬 산(山) 깊은 금점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섶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 –

* 금점판 : 금광의 일터.
* 섶벌 : 재래종의 일벌.

(나)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마스크를 쓰고 암 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 있다
㉠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 있다
㉡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아 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돋아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흙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계를 떠올린다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지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 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 문태준, 「가재미」 –

* 누대 : 여러 대.

3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②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③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현장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④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이 지닌 정서를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31.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는 자신과 시적 대상의 삶을 비교하고 있다.
② ⓐ는 시적 대상으로 인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고 있다.
③ ⓑ는 시적 대상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는 시적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⑤ ⓐ와 ⓑ는 모두 시상이 전개되면서 시적 대상과 하나가 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여승」은 한 여인의 비극적 삶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수탈로 농촌 공동체가 몰락하고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는 당대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집을 떠난 지아비를 찾아 금점판을 떠돌다가 어린 딸마저 잃고 여승이 되어 버린 한 여인의 기구한 인생을 4연 12행의 짧은 구성으로 밀도 있게 보여 준다. 또한 이 시의 시상은 시간적 흐름에 따르지 않고 시간적 순서를 재구성하여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① 여인이 '금점판'에서 '옥수수'를 팔고 '나'가 그 '옥수수'를 사는 것은 농촌 공동체의 몰락과 이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군.
② '섶벌같이 나아간 지아비'가 '십 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은 사실은 가난으로 인해 가족 공동체가 파괴된 모습으로 볼 수 있군.
③ '어린 딸'이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는 것은 남편을 찾아 떠돌다가 딸마저 잃게 된 여인의 기구한 삶을 드러낸 것이군.
④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은 여인이 현실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여승이 된 날로 볼 수 있군.
⑤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재구성하여 1연에서는 여승이 된 현재 모습을, 2~4연에서는 여승이 되기까지의 과거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33.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병상에 누워 투병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납작한 가재미를 떠올리고 있다.
② ㉡: 투병 중인 그녀에 대한 나의 연민과 위로가 구체적 행위로 드러나 있다.
③ ㉢: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녀의 과거 삶이 드러나 있다.
④ ㉣: 죽음이 임박해지고 있는 그녀의 현재 상황이 드러나 있다.
⑤ ㉤: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녀의 체념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국 역사에서 전국 시대는 전쟁으로 점철된 시대였다. 여러 사상가들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백성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의 이론을 뒷받침할 형이상학적 체계로서의 인성론이 대두되었다. 인성론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성선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 인간의 본성에는 애초에 선과 악이라는 구분이 전혀 없다는 성무선악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맹자와 순자를 비롯한 사상가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론적 탐구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정치적 관점으로 인성론을 구성하고 변형시켜 왔다.

[A] 맹자의 성선설이 국가 공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호족들 및 지주들이 선한 본성을 갖춘 자신들을 간섭하지 말라는 이념적 논거로 사용되었다면, 순자나 법가의 성악설은 군주가 국가 공권력을 정당화할 때 그 논거로서 사용되었다. 즉 선악이란 윤리적 개념이 정치적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성선설에서는 개체가 외부의 강제적인 간섭 없이도 '정치적 질서'를 낳고 유지할 수 있다고 본 반면, 성악설에서는 외부의 간섭이 없을 경우 개체는 '정치적 무질서'를 초래할 뿐인 존재라고 본 것이다.

한편 ㉠ 고자는 성무선악설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과 같은 자연적인 욕구가 본성이므로 이를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윤리적인 범주로서의 선과 악의 개념으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소용돌이치는 물'로 비유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소용돌이처럼 역동적인 삶의 의지를 지닌 인간을 규격화함으로써 그 역동성을 마비시키려는 일체의 외적 간섭에 저항하는 입장을 취하도록 하였다.

㉡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역동적인 것으로 간주한 고자의 인성론을 비판하였다. 맹자는 살아있는 버드나무와 그것으로 만들어진 나무 술잔의 비유를 통해, 나무 술잔으로 쓰일 수 있는 본성이 이미 버드나무 안에 있다고 보았다.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이러한 본성을 인의예지 네 가지로 규정하였다. 고통에 빠진 타인을 측은히 여기는 동정심, 즉 측은지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다고 보고, 측은한 마음은 인간의 의식적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쌍한 타인을 목격할 때 저절로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다고 본 것이 맹자의 관점이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 즉 타인의 힘이 아닌 자력으로 수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맹자 수양론의 기본 전제이다.

모든 인간은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고, 이 선한 본성의 실현은 주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맹자의 성선설을 순자는 사변적이고 낙관적이며 현실 감각이 결여된 주장으로 보았다. 선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은 국가 질서, 학문, 관습 등과 같은 외적인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본 맹자의 논리는 현실 사회에서 국가 공권력과 사회 규범의 역할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논거로도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순자의 견해처럼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전제할 때 그것을 교정하고 순치할 수 있는 외적인 강제력, 다시 말해 국가 권력이나 전통적인 제도들이 부각될 수 있다. 국가 질서와 사회 규범을 정당화하기 위한 순자의 견해는 성악설뿐만 아니라 현실주의적 인간관에서 비롯되었다.

순자는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지만 그것을 충족시켜줄 재화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보고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 의해 예(禮)가 만들어졌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만약 인간에게 외적인 공권력과 사회 규범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인간들은 자신들의 욕망 충족에 있어 턱없이 부족한 재화를 놓고 일종의 전쟁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무질서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맹자의 성선설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순자의 비판은, 바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로부터 나온 것이다.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성에 대한 세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② 인성론의 등장 배경과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③ 인성론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④ 인성론이 등장한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⑤ 인성에 대한 두 견해를 제시하며 이를 절충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35. [A]를 통해 '인성론'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의 발전을 위한 갈등 유지의 당위성을 인정하였다.
② 권력자의 윤리 의식과 통치력이 상반된다고 판단하였다.
③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는 이념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④ 초자연적 존재와 대비되는 인간 본성의 우위를 추구하였다.
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거스르는 인위적 노력을 배격하였다.

36. 윗글의 '순자'와 <보기>의 '홉스'가 모두 동의할 만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이 이기적이므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연 상태'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의 권력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리바이어던이다. 이는 공동의 평화와 방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힘과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이다. 사람들은 리바이어던 같은 절대 통치자에게 복종을 약속하고 대신 통치자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데, 국가는 바로 이러한 계약에 따라 만들어졌다.

①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함을 인정해야 한다.
② 인간은 공동의 평화를 위해 국가 권력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③ 통치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정된 재화의 균등한 분배에 힘써야 한다.
④ 대립적 상황의 해결을 위하여 인간의 본성이 발현되는 자연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규범은 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해 마련되어야 한다.

37. ㉠ ~ ㉢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빵을 훔친 장발장은 체포되어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다. 출소한 장발장은 신분증에 전과가 적혀 있어 잠잘 곳도, 일자리도 구할 수 없게 된다. 오직 미리엘 주교만은 이런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으나, 장발장은 은촛대를 훔치다가 경관에게 붙잡힌다. 하지만 미리엘 주교는 은촛대는 장발장이 훔친 것이 아니라 선물로 준 것이라고 말하며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이에 감동받은 장발장은 정체를 숨기고 선행을 베풀며 살아간다.

① ㉠: 장발장이 배가 고파 빵을 먹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 미리엘 주교가 은촛대를 장발장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한 것은 역동적 삶의 의지를 규격화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③ ㉡: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에게 편히 쉴 곳을 마련해 준 것은 불쌍한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 장발장이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모습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한 본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 장발장이 체포되어 수감된 것은 본성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 규범에 의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 경기도 장단에 사는 선비 김 주부는 무남독녀 매화를 슬하에 두고 있었다. 조정의 간신들이 김 주부를 해치려고 하자, 그는 매화를 남장시켜 길거리에 두고 부인과 함께 구월산으로 몸을 피한다. 부모를 잃은 매화는 조 병사 집 시비에게 발견되어 그 집 아들인 양유와 함께 글공부를 하면서 성장한다.

이때에 양유 매화를 찾아 학당으로 돌아오매 매화 눈물 흔적 있거늘 양유가 가로되,

"그대 어찌하여 먼저 왔으며 슬픈 기색이 있느뇨. 아마도 곡절이 있도다. 오늘 사람들이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 하니 그 일로 그러한가 싶으니 그럼 여자가 분명한가?"

하더라. 매화 흔연히 웃으며 가로되,

"어린아이 부모를 생각하니 어찌 아니 슬프리요. 또 내 몸이 여자면 여자로 밝히고 길쌈을 배울 것이지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리요. 본디 골격이 연연하매 지각없는 사람들이 여자라 하거니와, 일후 장성하여 골격이 웅장하면 장부 분명하올지라."

하고 단정히 앉아 풍월을 읊으니 소리 웅장하여 호치(皓齒)를 들어 옥반(玉盤)을 치는 듯 진시 남자의 소리 같은지라. 양유 그 소리 들으며 남자가 분명하되 이향(異香)이 만당(滿堂)하여 다만 매화의 태도를 보고 마음만 상할 따름일러라.

이때는 놀기 좋은 춘삼월이라. 춘풍을 못 이겨 양유 매화를 데리고 경개(景槪)를 따라 놀더니 서로 풍월 지어 화답하매 매화 ⓐ 양유 글을 받아 보니 하였으되,

양유선득춘(楊柳先得春) 양유는 먼저 봄빛을 얻었는데,
매화하불락(梅花何不樂) 매화는 어찌 즐겁지 아니하는고.

하였더라. 양유가 ⓑ 매화의 글을 받아 보니 하였으되,

호접미지화(胡蝶未知花)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
원앙부득수(鴛鴦不得水)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하였도다.

하였거늘 이에 양유가 그 글을 받아 보고 크게 놀라 기뻐하여 가로되,

"그대 행색이 다르기로 사랑하였더니 풍모가 정녕 여자로다. 그러하면 백년해로 어떠하뇨."

매화 고개를 숙이고 수색(愁色)이 만안하여 가로되,

"나는 과연 여자이거니와 그대는 사부(士夫)집 자제요, 나는 유리걸식하는 사람이라. 어찌 부부 되기 바라리요. 낸들 양지작을 모르리요마는 피차 부모의 명이 없삽고 또한 예절을 행치 못하면 문호에 욕이 되올 것이니 어찌 불효짓을 하리요. 부모의 명을 받아 백년해로한다면 낸들 아니 좋으리까."

양유 희색이 만안하여 가로되,

"그대 말이 당연하도다."

마침 이때에 시비 옥란이 급히 와 여쭈오되,

"외당에 상객이 왔으매 생원님이 급히 찾나이다."

양유 매화를 데리고 외당으로 들어가매 과연 상객이 있는지라. 병사가 가로되,

"두 아이 상을 보라."

한대 상객이 가로되,

"매화의 상을 보니 여자로소이다."

병사가 가로되,

"그대 상을 잘못 보았도다. 어찌 여자라 하리요."

상객이 가로되,

"여자가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려니와, 내 눈에 어찌 벗어나리요."

매화 무료하여 학당에 돌아가니라. 양유의 상을 보고 가로되,

"내두(來頭)*에 일국의 재상이 되었으되, 불쌍코 가련토다. 나이 16세 되면 호식(虎食)*할 상이오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병사가 크게 놀라 가로되,

"어디서 미친놈이 상객이라 하고 왔도다."

하인을 불러 쫓아내라 한대 상객 일어나 두 걸음에 인홀불견(仞忽不見)*이거늘 실로 고이하여 살펴보니 상객 앉았던 자리에 한 봉서 놓였거늘 즉시 개탁(開坼)*하니 하였으되,

'양유와 매화로 부부 아니 되면 임진 3월 초삼일에 필연 호식(虎食)하리라.'

하였더라. 병사 대경하여 무수히 슬퍼하다가 매화를 불러 가로되,

"너를 보고 여자라 하니 실로 고이하도다."

하시고 무수히 슬퍼하시거늘 매화 두 번 절하고 가로되,

"소녀 어찌 기망(欺罔)*하오리까. 소녀 과연 여자로소이다. 일찍 부모를 이별하옵고 일신을 감출 길 없사와 남복을 입고 기망하였사오니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거늘 병사 크게 놀라며 또한 크게 기뻐하여 더욱 사랑하여 가로되,

"오늘부터 내당에 들어가 출입치 말라."

하시고 매화의 손을 이끌어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대하여 가로되,

"매화는 여자라 하니 어찌 사랑치 아니하리요. 행실을 가르치라."

하거늘 최 씨 부인이 크게 기뻐하여 연연하더라. 이때 병사 외당에 나가 양유를 불러 가로되,

"매화는 여자라 하니 일후는 매화로 더불어 한자리에 앉지 말라."

하신대 양유 어찌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리요.

차설이라. 매화는 여복을 입고 내당에 거처하고, 양유는 학당에 있으매, 시서(詩書)에 뜻이 없고 다만 생각이 매화뿐이로다. 월명사창(月明紗窓)*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탄식할 제,

"매화야, 너는 무슨 일로 남복을 입고 나를 속였느냐. 부모의 명이 지엄하시니 뉘로 하여금 공부하며 뉘로 하여금 노잔 말가."

이렇듯이 자탄할 제, 이때 최 씨 부인 양유의 계모라 매화의 인물 탐하여 매일 사랑하시더니 제 상처한 남동생 있으매 혼사할 뜻이 있어 모계(謀計)를 꾸미더라. 하루는 병사 내당에 들어와 부인 최 씨를 대하여 가로되,

"전일 상객이 이러이러하니 내두 길흉을 어찌하리요. 매화는 양유와 동갑이요, 인물이 비범하니 혼사함이 어떠하리이까."

부인이 변색하여 가로되,

"병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양유는 사부 후계요, 매화는 유리걸식하는 아이라, 근본도 아지 못하고 어찌 인물만 탐하리까."

병사 옳이 여겨 가로되,

"부인의 말씀이 옳도다. 일후에 장단골 가서 매화 근본을 알리라."

– 작자 미상, 「매화전」 –

* 내두(來頭) : 지금부터 다가오게 될 앞날.
* 호식(虎食) : 호랑이에게 잡아 먹힘.
* 인홀불견(仞忽不見) : 보이다가 슬쩍 없어져 보이지 않음.
* 개탁(開坼) : 봉한 편지나 서류를 뜯음.
* 기망(欺罔) : 그럴듯하게 속여 넘김.
* 월명사창(月明紗窓) : 달이 밝게 비치는 창.

38.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건 진행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고 있다.
②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인물과 인물의 첨예한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⑤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39.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양유는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매화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
② 매화는 부모의 허락을 전제로 양유의 청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③ 상객은 양유와 매화가 혼인하지 않으면 양유에게 불행이 닥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④ 병사는 매화의 용모와 양유의 적극적인 결혼 의지를 바탕으로 둘의 혼인에 대해 최 씨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⑤ 최 씨는 매화의 근본을 핑계 삼아 양유와 매화의 혼인을 반대하고 있다.

40. <보기>를 참고할 때, ⓐ와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 소설 속에 삽입된 시는 서사 맥락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인물의 심리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거나 인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주제를 집약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사건을 전개시키거나 사건 전개의 방향을 암시하기도 하고 분위기 형성, 인물들 간의 의사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① ⓐ는 양유의 심리 상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를 본 후 매화가 ⓑ로 답한 것은 인물 간의 의사소통 행위로 볼 수 있다.
③ ⓑ에서 '나비'는 양유를, '꽃'은 매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를 본 후 양유가 매화에게 청혼한 것으로 볼 때 ⓑ는 사건을 전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⑤ ⓐ와 ⓑ는 양유와 매화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건 전개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41~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잠아 잠아 짙은 잠아 이내 눈에 쌓인 잠아
염치 불구 이내 잠아 검치 두덕* 이내 잠아
어제 간밤 오던 잠이 오늘 아침 다시 오네
잠아 잠아 무삼 잠고 가라 가라 멀리 가라
세상 사람 무수한데 구태 너는 간 데 없어
원치 않는 이내 눈에 이렇듯이 자심(滋甚)*하뇨
주야에 한가하여 월명 동창 혼자 앉아
삼사경 깊은 밤을 허도(虛度)이 보내면서
잠 못 들어 한하는데 그런 사람 있건마는
㉠ 무상불청(無常不請)* 원망 소래 온 때마다 듣난고니
석반(夕飯)*을 거두치고 황혼이 대듯마듯
㉡ 낮에 못 한 남은 일을 밤에 할랴 마음먹고
언하당(言下當)* 황혼이라 섬섬옥수(纖纖玉手)* 바삐 들어
등잔 앞에 고개 숙여 실 한 바람 불어 내어
드문드문 질긋 바늘 두엇 뜸 뜨듯마듯
난데없는 이내 ⓐ 잠이 소리 없이 달려드네
㉢ 눈썹 속에 숨었는가 눈알로 솟아 온가
이 눈 저 눈 왕래하며 무삼 요수 피우든고
맑고 맑은 이내 눈이 절로 절로 희미하다

– 작자 미상, 「잠노래」 –

* 검치 두덕 : 욕심 언덕.
* 자심(滋甚) : 더욱 심함.
* 무상불청(無常不請) : 청하지 않은.
* 석반(夕飯) : 저녁밥.
* 언하당(言下當) :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여기서는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의 뜻임.
* 섬섬옥수(纖纖玉手) : 가냘프고 고운 여자의 손.

(나)

귓도리 저 귓도리 어여쁘다 저 귓도리
어인 귓도리 지는 달 새는 밤의 긴 소리 쟈른 소리 ㉣ 절절(節節)이 슬픈 소리 제 혼자 우러 네어 사창(紗窓) ⓑ 여윈 잠을 살뜰히도* 깨우는구나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 무인동방(無人洞房)에 내 뜻 알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귓도리 저 귓도리~」 –

* 살뜰히도 : 알뜰하게도, 여기서는 '얄밉게도'의 뜻임.

(다)

물은 하나의 국가요, 용은 그 나라의 군주다. 물고기 가운데 큰 것으로 고래, 곤어, 바닷장어 같은 것은 군주를 안팎에서 모시는 여러 신하이다. 그 다음으로 메기, 잉어, 다랑어, 자가사리 같은 것은 서리나 아전의 무리다. 이밖에 크기가 한 자 못 되는 것들은 물나라의 만백성이라 할 수 있다. 상하가 서로 차례가 있고 큰 놈이 작은 놈을 통솔하니, 그것이 어찌 사람과 다르겠는가?

그러므로 용은 물나라를 다스리면서, 날이 가물어 마르면 반드시 비를 내려 주고, 사람이 물고기를 다 잡아 버릴까 염려하여서는 큰 물결을 겹쳐 일어나게 하여 덮어 준다. 그러한 것이 물고기에 대해서 은혜를 끼침이 아닌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물고기에게 인자하게 베푸는 것은 한 마리 용뿐이요,

물고기를 학대하는 것은 수많은 큰 물고기들이다. 고래와 암코래는 조류를 들이마셔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일을 자신의 시서(詩書)로 삼고, 교룡과 악어는 물결을 헤치며 삼키고 씹어 먹어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을 거친 땅의 농사일로 삼으며, 문절망둑, 쏘가리, 두렁허리, 가물치의 족속은 틈을 타서 발동을 해서 작은 물고기를 자신의 은이요 옥으로 삼는다. 강자는 약자를 삼키고, 지위가 높은 자는 아랫것을 약탈하니, 진실로 강한 자, 높은 자가 싫증 내지 않는다면 작은 물고기는 반드시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슬프다!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이 누구와 더불어 군주가 되며, 저 큰 물고기들이 어찌 으스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용의 도리란 작은 물고기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차라리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만 못하리라!

아아, 사람들은 물고기에게만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도 큰 물고기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니, 물고기가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어찌 사람이 물고기를 슬퍼하는 것보다 심하지 않다고 하랴?

– 이옥, 「어부(魚賦)」 –

4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②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절망적인 심경을 표출하고 있다.
④ 부정적인 현재 상황에 대해 탄식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물의 속성에서 삶의 교훈을 이끌어 내고 있다.

4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달리 (나)는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나)와 달리 (가)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시간적 배경을 통해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색채의 대비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4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화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다.
② ⓑ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방해 받고 있다.
③ ⓐ와 달리 ⓑ는 화자가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이다.
④ ⓑ와 달리 ⓐ는 화자의 고통을 해소시키고 있다.
⑤ ⓐ와 ⓑ는 모두 화자가 거부하는 대상이다.

44.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화자와 상반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잠'에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② ㉡: 쉬지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화자의 고달픈 삶이 나타나 있다.
③ ㉢: '잠'을 의인화하여 잠이 쏟아지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 화자의 내면적 슬픔을 '귓도리'의 울음소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 혼자 살아가는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알아주는 유일한 대상이 '귓도리'라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어부」는 국가의 상황을 물속의 세계에 빗대고, 군주를 '용'에, 여러 신하를 '큰 물고기'에, 백성을 '작은 물고기'에 빗대어 현실 세계를 비판하고 있다. 글쓴이는 나라의 근본은 '작은 물고기'인 백성이므로 백성들을 수탈하는 '큰 물고기', 즉 관리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군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① 용이 큰 물결을 일어나게 하여 물고기를 덮어 주는 것은 백성을 어질게 살피는 군주의 모습으로 볼 수 있군.
② 교룡과 악어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은 백성을 수탈하는 관리들의 모습으로 볼 수 있군.
③ 작은 물고기가 없으면 용이 군주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이 백성에게 있다는 글쓴이의 인식을 보여 주는군.
④ 작은 물고기를 해치는 족속을 물리치는 것이 용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군주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관리를 잘 다스리는 일임을 말해 주는군.
⑤ 사람들이 사람에게도 큰 물고기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관리들의 수탈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백성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